

ML 직장폐쇄 장기화...류현진, 이제 어디로 가야하나

이번주 한화 캠프 끝난 후 다음주 훈련 미정

메이저리그 노사협상 타결 되면 곧바로 미국행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거취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장 다음주 훈련일정도 계획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메이저리그 진출한 류현진은 항상 시즌을 마친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미국에 가기 전 웨이트 트레이닝과 가벼운 토스 등으로 어깨를 강화한 후 미국 스프링캠프에서 본격적으로 구위를 끌어 올리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올해도 똑같았다. 류현진은 지난 1월 제주도에서 개인 훈련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지속된 메이저리그 직장폐쇄로 인해 류현진은 미국으로 가지 못한 채 한국에서 훈련을 진행중이다. 다행히 친정팀 한화 이글스의 도움을 받아, 거제 캠프에

서 옛 동료들과 함께 몸을 만들고 있다.

류현진은 거제 캠프 막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에 들어가기도 했다. 격리 중에 몸 상태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일주일 넘게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다.

류현진은 격리를 마친 후 한화의 대전 캠프에 합류했다. 불펜 피칭을 하는 등 서서히 개막에 맞춰 컨디션을 조율중이다.

하지만 실제로 마운드에 올라 실전 경기에 나설 수 없다. 류현진은 KBO리그 소속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연습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간혹 불펜 피칭만 할 뿐, 라이브 피칭은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류현진은 이제 한화와의 동거도 할 수 없게 됐다. 한화의 대전 캠프 역시 오는 11일로 끝

이 난다. 한화는 오는 4월2일 개막에 돌입하기 위해 12일부터 시범경기를 통해 실전감각을 다질 예정이다.

류현진은 이제 미국에서 훈련 파트너를 찾아야 할 때가 왔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개막일은 여전히 미정이다. 이미 개막이 한 차례 연기됐지만, 메이저리그 노사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메이저리그 노사는 7일에도 만났지만, 여전히 의미있는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류현진은 당장 다음주 훈련계획도 없다.

류현진의 소속사 관계자는 “메이저리그 노사협상을 지켜보는 상황이다. 이번주까지 한화에 캠프에서 훈련한 후 다음 훈련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이저리그 개막이 확정되면 곧바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예정이다. 관계자는 “협상이 타결 되면 바로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마친 상태다”고 말했다.



4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 연습경기, 1회말 2사 1루에서 키움 푸이그가 안타를 친 뒤 진루하고 있다. 한화의 스프링캠프에 참여한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이 푸이그의 플레이를 지켜보고 있다.

‘신기록 세우며 우승’ 고진영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증명”

15라운드 연속 60대 타수·30라운드 연속 언더파 신기록 세우며 HSBC 챔피언십 우승...통산 13승



고진영이 6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위민스 월드챔피언십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진영은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로 공동 2위 전인자·이민지(호주)를 2타 차로 제치고 시즌 첫 우승, 통산 13승째를 올렸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고진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기록과 함께 시즌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

고진영은 6일(한국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클럽 뉴 탄종 코스(파72)에서 열린 LPGA 투어 HSBC 위민스 월드챔피언십(총상금 170달러 달러) 4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번 시즌 첫 출전 대회에서 정상에 선 고진영은 통산 13승을 달성했다.

15라운드 연속 60대 타수를 작성하며 LPGA 투어 새 역사까지 썼다.

고진영은 지난해 10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라운드부터 60대 타수 기록 행진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 대회 3라운드에서 69타를 쳐 14라운드 연속 60대 타수로 이 부문 타이로 올라섰다.

고진영의 기록 행진은 멈추지 않았다. 이날도 66타로 마무리하며 2005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2017년 유소연을 넘어 15라운드 연속 60대 타수 LPGA 투어 신기록

을 세웠다.

지난해에도 7월부터 10월까지 14라운드 연속 60대 타수를 기록했던 고진영은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71타에 그쳐 대기록을 눈앞에서 놓친 바 있다. 그러나 곧바로 다시 60대 타수를 연이어 작성하며 LPGA 투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또한 고진영은 30라운드 연속 언더파를 기록, 소렌스탐(2004년), 리디아 고(뉴질랜드·2015년)이 가지고 있던 이 부문 기록을 다시 썼다.

경기를 마친 뒤 고진영은 대기록과 함께 우승한 소감에 대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플레이를 잘해 기록을 깰 수 있었다. 작년에 부산에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긴장도 했고, 여러 상황이 안 받쳐줬다. 아쉬웠는데 기록을 깰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왔다”면서 “오늘 압박감 속에 경기를 했지만 그걸 깨면서 내 자신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더 없이 기쁜 하루”라고 밝혔다.

“기록은 항상 깨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내가 썼지만, 누군가가 또 깰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나가고 싶다”고 의욕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전인자, 이민지(호주)는 고진영에 2타 뒤진 합계 15언더파 273타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이정은은 공동 4위(14언더파 274타), 양희영은 공동 6위(13언더파 275타)에 자리했다.

뉴스스

KIA, 올해 캐치프레이즈는 “포효하라”

“명문 구단 위상 되찾겠다 강력한 의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022시즌 캐치프레이즈를 ‘포효하라 Always KIA TIGERS’로 확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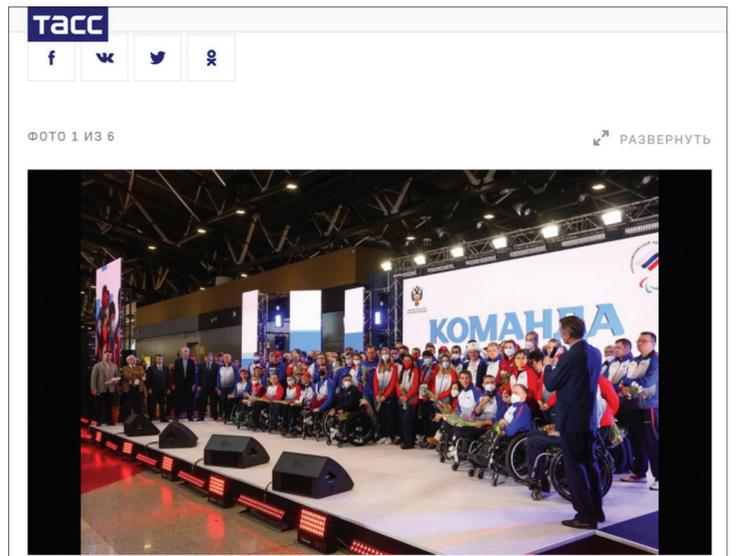
구단은 ‘포효하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대해 호랑이 해를 맞아 KIA 선수와 코칭스태프, 프런트 등 모든 구성원이 명문 구단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Always KIA TIGERS’는 ‘언제나 팬과 함께, 흠여지지 않는 하나의 팀워크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팬 퍼스트의 지속적 강팀으로 우뚝 서



KIA 타이거즈 2022시즌 캐치프레이즈. (KIA 제공)

겠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러시아 패럴림픽 선수단이 6일 러시아에 귀국해 환영행사에 참석했다. (사진=타스 통신 캡처)

되돌아간 ‘패럴림픽 러 선수들’ 고국서 성대한 환영

국제패럴림픽위원회 결정에 2022 베이징동계패럴림픽 참가 못하고 귀국

2022 베이징동계패럴림픽에서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러시아 선수단이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6일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선수단은 중국 베이징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돌아왔다.

러시아는 귀국한 선수들을 성대한 환영식을 열어 받았다. 공항에서부터 축하 공연이 진행됐고, 팬들을 비롯한 많은 환영 인파가 몰렸다. 선수들에게 열렬한 박수가 쏟아졌고, 어린이 합창단은 러시아 국가를 불렀다.

올레크 마티친 러시아 스포츠부 장관, 이고르 레비틴 대통령 보좌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공항에 나와 선수들을 맞이했다.

레비틴 대통령 보좌관은 환영사에서 “여러 분들이 승자라고 말하고 싶다”며 선수들을 치켜세웠다. 블라디미르 루킨 전 러시아 패럴림픽 위원장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러시아 장애인 스포츠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대회 출전이 금지돼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선수들을 받기는 자리라는 점을 떠올리기 쉽지 않은 모습들이다.

당초 러시아는 패럴림픽 참가를 위해 71명의 선수단을 꾸렸다. 노르딕스키(크로스컨트리 스키·바이애슬론) 33명, 아이스하키 17명, 알파인스키 10명, 스노보드 6명, 휠체어컬링 5명 등이다.

이들은 베이징에 입성해 패럴림픽 출전을 준비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지난 2일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에 대해 ‘중립국 소속’으로 패럴림픽 참가를 허용했던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많은 비판이 잇따르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이들의 대회 참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결국 선수단은 그대로 집을 싸 귀국해야 했다.

세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다. 스포츠계에서도 러시아 퇴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날 환영식에서 나타나듯 러시아의 생각은 다른 것처럼 보인다.

마티친 스포츠부 장관은 “우리는 IPC의 차별적인 결정이 유감스럽다”면서 “진실은 항상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조 풀타임 출전 불구

보르도 0-2 완패 ‘강등 위기’



황의조(30·보르도)가 풀타임을 뛰고도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보르도는 6일(한국시간)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린 트루아와의 2021-22시즌 프랑스 리그1 27라운드에서 트루아에 0-2로 완패했다.

황의조는 몇 차례 위협적인 공격을 보여줬지만,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최근 5경기에서 무승에 그친 보르도는 시즌 4승 10무 13패(승점 22점)를 기록해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렀다. 보르도는 강등을 눈앞에 뒀다.

전반 28분 페널티킥을 허용한 보르도는 동점골을 넣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후반 42분에 레보 모티바에게 페널티킥 골을 허용해 무릎을 꿇었다.

한편 트루아 공격수 석현준(31)이 이날 경기에 뛰지 않아 한국인 선수의 맞대결은 성사되지 않았다.

강성훈, PGA 푸에르토리코 오픈서 22위로 마무리

배상문 공동 50위·노승열 공동 55위

라이언 브랜, 생에 첫 PGA 투어 우승

강성훈(35)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푸에르토리코 오픈(총상금 370만 달러)에서 공동 22위로 대회를 끝냈다.

강성훈은 7일(한국시간) 푸에르토리코 리오그란데의 그랜드 리저브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4개를 쳐 2언더파 70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9언더파 279타를 친 강성훈은 공동 22위에 자리했다. 강성훈은 2타 차이로 아쉽게 톱 10 진입에 실패했다.

배상문(36)은 최종합계 4언더파 284타를 기록해 공동 50위에 머물렀고, 노승열(31)은 3언더파 285타로 공동 55위에 그쳤다.

라이언 브랜(미국)은 생에 첫 PGA 투어 우승을 거머쥐었다. 브랜은 마지막 4라운드에서 버디만 5개를 잡아내 최종합계 20언더파 268타를 기록해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다.

맥스 맥그리브(미국)는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를 쳐 2위, 브랜던 우와 토미 게이니(이상 미국)는 13언더파 275타로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뉴스스